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예비검사

제 1 교시

언어추론

수험 번호: - 성명: _____

1

-
-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지를 넘기지 마시오. 문항을 미리 볼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 문제지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면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00~10:20 (80분)입니다.
 - 이 문제지는 검사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밑줄 친 단어가 의미에 맞게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자발스럽게 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 ② 나는 그가 하는 행동이 별로 탐탁스럽지 않다.
- ③ 그는 너무 간살스러워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 ④ 아이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해사스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 ⑤ 아버지의 든든한 어깨가 오늘따라 더욱 미옥스럽게 느껴졌다.

2. 동일한 한자어가 쓰인 문장으로 짝 지어진 것은?

- ① { 한국이 이번 기능 올림픽에서 종합 우승하였다.
그는 불규칙한 식생활 때문에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
- ② { 병원 직원들이 어머니의 유품 수습을 돕고 있다.
지진 발생 직후 재난 수습 대책 본부가 구성되었다.
- ③ { 반복 연습은 외국어 습득에 가장 효율적이다.
분실물 습득 시 물품 보관소에 연락 바랍니다.
- ④ { 아군은 상하가 일체가 되어 적을 맞아 싸웠다.
그는 평생 모든 재산 일체를 사회에 환원하였다.
- ⑤ { 그 직원은 포장 이사의 달인이라 할 만하다.
포장이 안 된 길을 가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3. ㉠~㉣에서의 잘못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누가 우리 귀한 아들을 ㉠ 나무래?
- 김치를 많이 ㉡ 담겨 이웃과 나눠 먹었다.
- 꼭 가 보고 ㉢ 싫다만은 그럴 여유가 없구나.
- 흥길동은 탐관오리의 ㉣ 등살에 시달리는 백성을 구하고자 했다.
- 빗쟁이들의 독촉에 집문서를 ㉤ 내놓을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 ① ㉠: ‘나무래’는 ‘나무라-’와 ‘-아’의 결합에서 어간의 끝 모음이 탈락한 것이므로 ‘나무라’로 써야 한다.
- ② ㉡: ‘담겨’는 ‘담구-’와 ‘-어’의 결합에서 모음 ‘ㅊ’과 ‘ㄱ’이 축약된 것이므로 ‘담귀’로 써야 한다.
- ③ ㉢: ‘만은’은 역접의 의미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미를 갖는 ‘마는’이나 ‘만’으로 써야 한다.
- ④ ㉣: ‘등살’은 그 어원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발음을 따라 ‘등쌀’로 써야 한다.
- ⑤ ㉤: ‘내놓을 밖에’는 ‘-을밖에’ 전체가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여서 ‘내놓을밖에’로 써야 한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명체의 물질대사란 생체 형성과 유지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 공급을 위한 모든 생화학적 절차를 말한다.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한 물질대사의 생화학 반응에는 피루브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포도당 분해 대사 또는 LDH(젖산탈수소효소) 활성을 거치는 젖산 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포도당을 이용한 방법은 젖산을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더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여러 효소가 참여하므로 대사 과정의 조절이 복잡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명체는 일상 환경에서 포도당을 얻는 것이 더 수월하므로 주로 포도당을 이용한 대사 과정을 통해 ATP를 얻는다. 젖산을 이용한 대사는 특이한 경우에만 일어나는데, 과도한 운동으로 체내에 일시적으로 생성된 젖산을 분해하는 과정이 그 예이다.

에너지 대사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물질대사와 연계되는 특징이 있다. 모든 생체 조직의 세포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대사 경로는 세포의 분화에서 사멸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생 과정에 있는 포유동물의 배아 세포는 체세포와는 달리 주요 대사 방법이 그 발생 경로를 따라 변한다. 수정란과 초기 배아의 생화학 반응은 난자가 만들어질 때 축적된 효소와 단백질 합성을 위한 전사체에 의해 진행된다. 수정란에는 포도당을 이용하여 피루브산을 생성할 수 있는 효소군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많은 양의 LDH가 포함되어 있다. ㉠ 초기 배아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보다는 LDH의 활성으로 인한 젖산의 변환 과정에서 대부분의 필요한 ATP를 얻는다. LDH의 활성은 세포질 내에서 강력한 환원제 역할을 해서 체세포와는 달리 수정란의 난할 시기에 나타나는 매우 빠른 세포 분열과 다양한 생합성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ATP를 생성한다. 그러나 난할의 후반부인 상실배를 거쳐 포배로 발달하고 자궁에 착상이 일어나면, 배아는 그 세포 특성이 성체 조직을 구성하는 체세포의 형태로 바뀌며 대사 관련 효소군이 갖추어지므로 포도당 대사를 통해 대부분의 ATP를 얻는다.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의 초기 배아는 태반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많은 양의 영양분을 난자에 축적하지 않는다. 따라서 태반 형성 이전의 배아는 부족한 영양분을 주로 생식관 안쪽으로 분비되는 내강액에서 얻는다.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는 수란관의 앞부분인 팽대부에서 정자와 만나 수정란이 되고, 수란관의 협부를 지나가면서 4-세포기, 8-세포기로 분화한다. 자궁에 도달할 즈음에는 상실배로 발달하며 포배의 형태로 자궁에 착상한다. 생식관의 생리적 조건이 배아 발생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강액 조성이 달라져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는 초기 배아의 물질대사는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해당 배아는 ATP 합성과 다른 물질 생합성 간의 비율을 매우 엄격하게 조절한다. 난할이 빠르게 진행되는 초기 과정에 필요한 ATP를 합성하는 데에는 피루브산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이어서, 초기 배아가 지나가는 수란관 협부에는 젖산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생쥐의 생식 관계 기관별 내강액 성분 분포를 표시한 아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때 모체의 생식 기관은 적절한 환경을 갖추어 초기 배아의 대사를 돕는다.

영양 물질 \ 기관	난소 (난포)	수란관 (팽대부)	수란관 (협부)	자궁
포도당	0.5	3.4	0.2	0.3
젖산	17.3	4.8	11.7	8.4
피루브산	0.4	0.3	0.2	0.3

(단위: mM)

배아 세포의 주요 대사 방법이 변하는 발생 과정의 단계는 각 동물 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생쥐의 배아는 2-세포기 때, 돼지의 배아는 4-세포기~8-세포기 때 난자 형성 과정 중에 축적되었던 전사체가 거의 소진되고 자체 유전자 활성이 시작되므로, 생쥐의 배아에 비해 돼지의 배아는 늦은 시기에 포도당 대사가 시작된다. 초기 배아에 관여하는 영양소는 다양하지만 실험실 환경에서는 포도당, 피루브산, 젖산만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각 물질의 농도를 발생 단계별로 적절히 조절하면 수정란을 포배로 발달시킬 수 있다.

4. ㉠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했을 실험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수의 초기 배아 세포와 체세포에서 각각 생성되는 ATP 양을 비교하는 실험
- ② 배양액에 함유된 포도당, 젖산, 피루브산이 각각 얼마만큼 배아에 흡수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
- ③ 주어진 젖산 농도와 포도당 농도에서 초기 배아를 배양하면서 각 조건에 따른 ATP 생산 능력을 비교하는 실험
- ④ 포도당을 피루브산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효소들이 난자 및 수정란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
- ⑤ 포도당을 이용하여 피루브산을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들의 총량과 젖산을 피루브산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의 총량을 비교하는 실험

5. 다음 세포 A와 B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어떤 포유동물의 세포 A와 B를 피루브산, 포도당, 비타민,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일반 배양액과, 다음과 같이 성분을 조절한 배양액에서 실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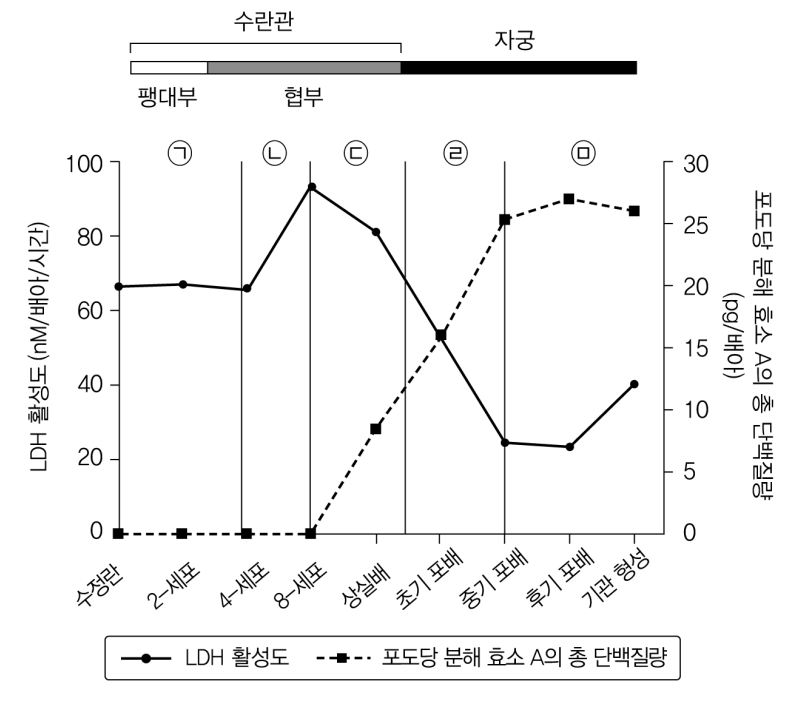
X: 일반 배양액에서 피루브산을 $\frac{1}{2}$ 로 낮춘 배양액
 Y: 일반 배양액에 젖산을 첨가하고 포도당의 농도를 $\frac{1}{5}$ 로 낮춘 배양액

- A는 X에서 세포 분열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 A의 세포 분열은 일반 배양액에서 억제되었으나 Y에서는 정상 진행되었다.
- B는 X에서 세포 분열이 정상 진행되었다.

- ① A는 B보다 포배기 이전 배아에 더 가깝다.
- ② A가 분화되면 LDH의 활성이 B보다 높아진다.
- ③ A의 물질대사는 포도당 농도의 변화에 적응한다.
- ④ A의 ATP 합성량은 일반 배양액에서보다 X에서 증가한다.
- ⑤ A는 B에 비하여 물질대사 비율을 엄격히 조절하지 못한다.

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래 그림은 어떤 포유동물의 생식과 발생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한 실험 결과 중 '발생 단계별 LDH 활성도와 포도당 분해 효소 A의 총 단백질량'에 관한 내용이다.



- ① ㉠은 젖산을 이용한 에너지 대사 시기로서 수정란 자체의 영양소에 의한 대사가 주로 진행될 것이다.
- ② ㉡ 시기에는 LDH 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 시기에 비해 세포 분열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 ③ ㉢ 시기에는 LDH 활성이 ㉠ 수준으로 감소하고 효소 A의 양이 증가하므로 포도당을 이용한 에너지 대사가 시작될 것이다.
- ④ ㉣ 시기 초는 LDH 활성이 ㉠ 시기와 유사하였다가 감소하는 시기로서, 난자에 축적되었던 효소와 전사체가 대사에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 ⑤ ㉤ 시기에는 젖산 대사가 후반부에 약간 증가하기 때문에 포도당 에너지 대사 과정에 필요한 효소군의 전사체가 완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30년대에 암흑 물질의 존재가 예견되었는데, 이것은 나선 은하에서 나선 팔의 균일한 회전 속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뉴턴 역학에 따르면 은하 중심을 축으로 회전하는 별의 속도는 회전 운동 궤도 안에 존재하는 전체 질량과 별의 궤도 반경에 의해 결정된다. 은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진 별은 대부분 은하 중심에 모여 있다. 따라서 중심을 벗어난 영역에서는 반경에 상관없이 궤도 내의 전체 질량은 일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처럼 궤도 반경이 클수록 별의 회전 속도는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관측 결과 궤도 반경이 커져도 별의 속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은하 내부에 질량은 가지면서 보이지는 않는 미지의 암흑 물질이 있어야 한다.

암흑 물질은 최근 두 은하단의 충돌을 관측하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고, 그 실체에 대해서는 최근 입자 물리학에 의해 설명이 가능해졌다. 암흑 물질은 질량을 가져야 하고 중력에 의한 상호 작용을 제외하고는 빛과 상호 작용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미약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야 하므로, 입자 물리학에서 제안된 중성미자, 워프, 액시온 등이 그 후보가 될 수 있다. 이 입자들의 질량은 다르지만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밀도가 암흑 물질의 질량 밀도를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된다.

중성미자는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붕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자로 양성자, 전자보다 매우 가벼우며 그 질량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중성미자는 현재의 우주 공간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는데 우주 생성 초기에는 더 빠르게 움직였다. 중성미자가 암흑 물질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경우, 우주의 구조 형성에 대한 가상 실험에 의하면 은하를 만들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구조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암흑 물질을 설명하는 입자는 우주 구조 형성 단계에서 느리게 움직여, 은하의 형성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중력 구심점에 모여 은하 형성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는 중성미자는 양자 요동에 의해 형성되는 초기 우주의 중력 구심점을 흐트려 은하의 형성을 방해한다.

입자 물리학의 최신 이론에서 예측되는 워프는 약한 상호 작용을 하는 무거운 입자로서, 더 이상 가벼운 입자로 붕괴하지 않으며 쌍으로만 생성·소멸된다. 워프는 우주 초기의 높은 온도에서 다른 입자들과 열평형 상태를 이루어 쉽게 생성·소멸되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면 다른 입자로부터 워프를 만들어 낼 에너지가 부족해져 소멸만 일어나다가 밀도가 더 낮아지면 소멸도 할 수 없어 그 개수가 보존된다. 양성자의 수십 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되는 워프는 암흑 물질을 설명할 수 있어 이를 ‘워프의 기적’이라 부른다. 워프는 우주가 식으면서 느리게 움직이며 양자 요동으로 만들어진 씨앗에 모여들어 은하의 형성을 돕는다. 워프는 은하 주변보다 은하 중심에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 있고, 지구 근처에서는 평균적으로 물 컵 정도의 공간에 한 개 정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워프가 우리 몸과 지구를 관통하면서 양성자, 전자 등 일반 물질과 약한 상호 작용을 하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못 느낀다.

액시온은 또 다른 암흑 물질 후보다. 액시온이 존재한다면 매우 가벼운 입자로 빛과 미약하게 상호 작용을 하며 그 질량은 전

자 질량의 수십억 분의 일보다 작다. 따라서 암흑 물질의 질량 밀도를 설명하려면 물 컵 정도의 공간에 10^{16} 개 이상의 액시온이 있어야 한다. 우주 초기의 높은 온도에서 자유롭던 쿼크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는데 이 상전이 과정에서 거의 정지 상태의 액시온이 많이 생성된다. 이러한 액시온의 생성 과정은 열평형 상태가 아니므로 액시온은 가벼운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주 구조 형성 시기에 매우 느리게 움직여 양자 요동으로 만들어진 씨앗에 모이게 되어 은하 생성을 도울 수 있다.

암흑 물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워프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검출할 수 있다. 직접 검출 방법은 워프와 원자핵의 상호 작용을 이용해 결정 검출기로 워프를 찾는 것이다. 간접 검출 방법은 질량 밀도가 높은 은하 중심이나 태양에서 워프가 소멸되면서 워프의 질량이 빛이나 일반 물질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반(反)입자 우주선이 특정한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초과 검출되면 워프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속기에서도 양성자를 충돌시켜 워프의 생성이 가능하다. 한편 액시온은 강한 자기장에서 빛으로 바뀌는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바뀐 빛을 증폭하여 액시온을 검출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7.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암흑 물질을 설명하기 위한 입자의 필요 조건은?

- ① 빛과의 미약한 상호 작용
- ② 은하 전체에서의 균일한 분포
- ③ 더 가벼운 입자로 붕괴할 가능성
- ④ 은하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느린 속도
- ⑤ 결정 검출기나 증폭기에 의해 검출될 가능성

8. 위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주 초기에는 워프의 생성과 소멸이 활발하였으므로 그 개수가 지금보다 많았다.
- ② 액시온이 암흑 물질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쿼크가 양성자, 중성자가 되는 상전이 과정이 중요하다.
- ③ 중성미자는 별의 주요 구성 성분인 양성자와 전자에 비해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암흑 물질의 질량 밀도를 설명할 수 없다.
- ④ 은하 중심을 벗어난 영역에서 별과 별 사이에 암흑 물질이 지금보다 더 많다면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별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 ⑤ 양성자 질량의 수십 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은하 중심으로부터 온 반양성자 우주선이 많이 검출될 경우, 워프가 소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9. 다음을 암흑 물질에 관한 위 글의 설명과 대비할 때, ㉠~㉤에 대응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뉴턴의 역학이 확립되었을 때 알려진 ㉠태양계의 행성들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이었다. 관측된 ㉡천왕성의 궤도가 이론상 예측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천왕성 바깥쪽을 도는 새로운 행성의 존재를 도입하였다. 이 ㉣외행성의 위치를 뉴턴 역학을 이용해 예측할 수 있었는데, 성능이 개선된 망원경으로 관찰하여 예측한 장소에서 ㉤해왕성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 ① ㉠ - 은하
- ② ㉡ - 회전 운동하는 별의 속도
- ③ ㉢ - 암흑 물질
- ④ ㉣ - 워프의 질량
- ⑤ ㉤ - 액시온의 존재

[10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균은 염색체에 유전 물질인 DNA의 형태로 자신의 유전 정보를 대부분 보관한다. 효소 등 생명 활동에 필요한 단백질은 DNA로부터 해당 정보를 넘겨받는 곳이자 세포 내 유일한 단백질 합성 기관인 리보솜에서 생성된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들은 일정량씩 항상 유지되는 반면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은 신속하게 다량 합성되기도 한다.

세균성 질병에 효과적인 치료약인 항생 물질은 곰팡이, 토양 세균 등에서 발견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항생 물질은 세균의 세포막, 세포벽 또는 세포 내 여러 물질과 결합함으로써 DNA 복제나 각종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작용을 통해 세균을 죽이거나 발육을 저지한다. 그런데 항생 물질들이 널리 사용되면서 항생 물질에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성 세균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인간의 항생 물질 오남용에 따라 내성 세균이 선택된 결과이다.

내성이 발현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세균은 세포막을

통해 각종 물질들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물질들은 배출하는 생체 활동을 하는데, 항생 물질은 세포막에 있는 특정 수송계를 이용해 세균 내부로 침투하여 작용한다. 어떤 내성 세균은 해당 수송계의 작동을 부분적으로 방해하여 항생 물질이 쉽게 흡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생존력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고용량의 항생 물질 사용으로 무력화된다. 침투한 항생 물질을 에너지를 사용하여 세포 밖으로 빠르게 배출하는 내성 세균도 있는데, 이런 내성 세균은 고용량의 항생 물질에 노출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한편 항생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하거나 파괴하는 효소를 생성하여 내성을 보이는 세균도 있다. 이런 효소들은 특정 항생 물질에 대해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내성은 유인 물질의 동시 사용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 즉, 내성 세균의 효소가 유인 물질을 항생 물질로 오인하여 그것을 주로 상대하는 사이에 진짜 항생 물질의 작용에 노출된 세균은 사멸되는 것이다.

또 다른 내성의 형태는 세균이 항생 물질의 표적이 되는 자신의 효소나 세포의 여러 부위를 변화시켜 항생 물질의 작용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표적이 되는 효소의 구조 일부를 변화시켜 항생 물질에 대한 반응성을 없애거나, 리보솜의 일부 구조를 변형함으로써 단백질 생산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항생 물질과 결합하는 부위만 없애 생명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이런 예가 된다. 한편 세균은 표적 효소를 변형하는 대신 그 유사 단백질을 다량으로 만들어 내어 항생 물질과 대신 결합하게 함으로써 고용량의 항생 물질에 노출되어도 생존에 중요한 효소들을 보호하기도 한다.

세균들 사이에서 내성과 관련된 유전자가 전달됨으로써 내성이 전파되기도 한다. 세균은 염색체와는 별도로 플라스미드라는 작은 고리형 DNA에 유전자를 추가로 가지기도 한다. 이 플라스미드를 복제하여 전달하는 것이 내성 유전자 전달의 주요 방법이다. 페니실린 내성 세균 B1과 세팔로스포린 내성 세균 B2를 예로 들어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B1은 내성 유전자가 포함된 플라스미드 전달을 위하여 ㉠플라스미드 복제본을 만들고, 접합용 ㉡'선모(線毛)'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다량 합성한다. 선모가 완성되면 B2와 ㉢접합부를 형성하여 B1이 준비한 플라스미드 복제본이 B2 내부로 전달된다. 이 경우, B2는 두 항생 물질에 대한 내성 유전자가 포함된 플라스미드를 둘 다 가지게 되는데, 이 두 플라스미드가 하나로 결합되기도 한다. 즉, 둘 중 하나에서 내성 유전자에 해당되는 ㉣DNA 조각이 분리되고, 다른 쪽 플라스미드의 적절한 부분에서도 고리가 열려, 열린 한쪽 부분에 미리 준비된 ㉤DNA 조각이 연결된다. 다른 쪽 끝도 연결되어 다시 고리 모양이 되면 두 항생 물질에 대한 ㉥복합 내성을 지닌 플라스미드가 완성된다. 이 플라스미드는 다시 복제되어 또 다른 세균에게 전달될 수 있다.

내성 전파에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용된 항생 물질 일부는 분해되어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 활성을 유지한 채로 주위 환경에 잔류하며, 이 잔류 약물은 내성 세균들을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항생 물질이 오남용되는 환경, 실험실 환경, 감염 조직 등에서는 플라스미드 교환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생 물질 내성 정보가 세균들 사이에 쉽게 퍼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여러 항생 물질에 모두 저항하는 복합 약물 내성 세균이 출현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10. 세균이 항생 물질에 저항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항생 물질이 작용하는 세포 부위의 구조를 변경한다.
- ② 항생 물질의 화학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효소를 발현한다.
- ③ 항생 물질이 결합되는 효소 단백질의 일부 구조를 변화시킨다.
- ④ 항생 물질의 유입량보다 배출량이 더 큰 세포막 수송계를 이용한다.
- ⑤ 항생 물질이 결합되는 리보솜을 변형하여 그 항생 물질을 분해한다.

11. 리보솜의 기능을 억제하는 어떤 항생 물질이 있다고 할 때, ㉠의 형성 과정 중 이 항생 물질이 직접 차단하는 단계를 ㉡~㉣에서 고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다음의 상황에서 X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균 X는 효소 E1과 E2를 순서대로 사용하여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생 물질 A1~A3을 시험관의 X에 시험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관찰되었다.

- A1 { X에서 분리된 E1을 A1과 혼합하면 서로 강하게 결합함.
X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A1을 세포 밖으로 빠르게 배출함.
- A2 { X에서 분리된 E2와 A2를 혼합하면 서로 강하게 결합함.
X는 E2와 유사한 구조의 단백질 P를 다량 생성하며 A2와 P는 서로 강하게 결합함.
- A3 { X의 세포 내부에 A3을 주입하면 리보솜과 A3은 서로 강하게 결합함.
X는 A3이 자신의 세포막을 통해서 쉽게 흡수되지 않도록 함.

- ① 고용량의 A1과 일반 용량의 A2를 함께 사용
- ② 일반 용량의 A1과 고용량의 A2를 함께 사용
- ③ 고용량의 A1과 일반 용량의 A3을 함께 사용
- ④ 고용량의 A2와 일반 용량의 A3을 함께 사용
- ⑤ 일반 용량의 A2와 고용량의 A3을 함께 사용

[13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의 법제에 대해 '전율(典律) 체제'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데, 『경국대전』과 중국의 『명률』을 법제의 근간으로 설정하는 이론이다. 이 견해에서는 조선이 '예주법종(禮主法從)'의 예치주의를 표방했지만, 『경국대전』을 포함하여 많은 법전을 편찬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법주예종(法主禮從)'의 법치주의 국가였다고 주장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대표적 법전인 『경국대전』을 오늘날 헌법적 위치에 비견하기도 한다.

예와 법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는데, 예를 자율적 도덕률로, 법을 타율적 강제 규범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흔한 논의이다. 이 외에도 예는 법과 도덕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규범이라든가, 예도 법의 일종으로 자연법에 해당하며 법은 실정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에 쓰인 예나 법의 용법에 포함되었을 다양한 요소가 현재 사용되는 하나의 개념으로 치환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과거에 사용된 예나 법 개념에 담긴 전체 요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개념에 포섭되는 요소를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개념들이 과거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율 체제 이론은 조선 시대 법체계의 일부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조선 시대 형법에 한정해서 『명률』과 『경국대전』 「형전」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또한 예치와 법치를 대립적 개념으로 설정하는데, 전통 시대의 예와 법을 대립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오늘날 법이라 일컫는 많은 부분을 조선 시대에는 예라고 불렀다. 국가의 통치 체제를 정해 놓은 법전의 전형으로 여겼던 『주례』는 유교의 대표적 예서의 하나였다. 조선 시대에 법으로 명시되었던 『경국대전』도 그 서문에서 『주례』를 모델로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주례』를 전범으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가 『경국대전』이 이념적인 정당성을 갖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현대의 법 개념에 상응하는 조선 시대의 어휘는 '예악형정(禮樂刑政)'이었다. 유교 정치 철학을 담고 있는 『예기』에는 예악형정이 자주 언급된다. 이 책의 핵심은 통치자가 성인(聖人) 군주이어야 하며, 덕을 갖춘 성인 통치자만이 예악형정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고, 예악형정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예악형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예악형정은 현대적 의미로 국가의 모든 제도와 법체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가 임의로 제정될 수는 없다. 유교 사상에 의하면, 예는 어디까지나 성인이 천(天)에 근거를 두고 만드는 것이었다. 인간이 만든 법 제도의 일종이라는 면에서 전통 시대의 예와 오늘의 법은 상통하는 점이 있다.

조선에는 예를 직접 조문화한 『국조오례의』라는 법전도 있었다. 『국조오례의』는 유교적 국가례의 전통에 따라 제사와 관련된 길례(吉禮), 각종 행사와 관·혼례를 규정한 가례(嘉禮), 국가 간의 관계와 군사 관련 사항을 수록한 빈례(賓禮)와 군례(軍禮), 그리고 장례 절차에 대한 흉례(凶禮) 등 다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책의 내용은 국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한편 『경국대전』 「예전」에서는 예에 관한 사항을 『국조오례의』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책을 『명률』과 동일한 방

식으로 예에 관한 법원(法源)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조선에는 적어도 『경국대전』, 『명률』, 『국조오례의』의 세 가지 법전이 있었던 셈이다. 세 가지 법을 '예전율(禮典律)'이라 부를 수 있는데, ㉠ 예전율 체제는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왕조의 기본 법체계였다.

『경국대전』을 헌법에 비견하는 것은 전(典)의 범주만을 헌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경국대전』은 군주가 관료에게 내린 명령인 수교(受敎)를 근거로 법전화한 것인데,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행정법에 가깝다. 율(律)은 형사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상 통치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의 기능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통치자의 권력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자의적인 행사를 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제주의에 대비되는 입헌주의 정치 체제의 핵심이 바로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는 데 있기 때문이다. 예에는 국가 의식에서 일상의 관혼상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가 있었는데, ㉡ 유교 국가에서 군주는 예를 정비하고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조선 시대에는 예가 군주권을 제약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였다.

13.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 ① 예치를 표방한 조선의 법체계는 통치권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장치였다.
- ② 조선에서 『명률』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은 국왕의 수교와 무관하다.
- ③ 유교 국가에서는 입법의 권리를 통치자보다는 기구와 제도에 두고 있었다.
- ④ 현대적 법 개념을 적용해도 예치와 법치의 대립적 이해가 해소되지 않는다.
- ⑤ 전율 체제 이론이 분석하는 법 제도는 조선 시대 예악형정의 범주를 포괄한다.

14. 위 글의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학자는 이상적 군주상을 『예기』에서 찾았을 것이다.
- ② 조선은 사신을 맞이하는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 ③ 명나라에도 조선의 『국조오례의』에 상응하는 예서가 있었을 것이다.
- ④ 관원이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항은 성문화된 법 규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 ⑤ 유교 경전과의 내용적 합치 없이 국가 법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15. ㉡의 취지에 가장 가까운 진술은?

- ① 천하 국가를 경영하려면 다섯 가지 예를 버리고 할 수 없습니다. 오례가 여러 성군(聖君)이 정성껏 다듬는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정밀해지고, 천지의 질서에서 세세한 의례의 절차에까지 정연하여졌습니다.
- ② 주상 전하께서는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업무를 보는 정전(正殿)을 피하시고 교지를 내려 의견을 물으시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근면하게 하는 도를 다하신 것이오라 조정의 신하들이 어찌 품은 뜻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 ③ 형(刑)이란 부득이한 것이고, 가장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공경하고, 공경하라. 오직 형벌은 신중히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리므로 우리 전하께서는 지극한 덕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형벌의 남용을 금하시는 좋은 법을 만드셨습니다.
- ④ 경전에 기록된 바인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친영(親迎)의 예’를 전하께서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혼(國婚)에서 몸소 실천하시어 이 땅의 백성에게 옛 제도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이시고, 동방에서 성인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게 하셨으니, 실로 조종 만민의 복이라 할 것입니다.
- 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장인(匠人)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상하가 서로 의지하여야 집이 오래갈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들어야 나라가 이에 편안할 것이므로 전하께서는 성현의 가르침을 펼치시기 위하여 배움의 제도를 세워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나라에서는 이민족의 지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업적인 화원화보다 사대부들의 문인화가 발전하였다. 한족 문인화가들은 남송의 멸망 이후 자연에 은거하면서 새로운 회화적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것은 복고(復古)를 통한 창신(創新)이었다. 나라를 잃은 남송 시대를 제외하고 위진남북조, 당, 북송의 화풍과 소재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문인화의 세계를 열었던 것이다. 이는 문인화가들이 이후 은거에서 돌아와 원나라 조정에 참여한 뒤에도 지속되었다.

말은 문인화가들이 즐겨 그린 소재이다. 문인화가 처음 형성되었던 북송 시대에 문인들은 말에 자신의 신상을 의탁하여 표현하였다. 대표적으로 이공린(李公麟)의 <오마도(五馬圖)>를 들 수 있는데, 이 그림은 변방에서 조공된 말과 마부를 그린 선을, 서예 필법을 활용한 백묘법(白描法, 붓 선으로만 그리는 것)으로 변화 있게 그린 것이다. 이러한 말 그림은 원나라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발하게 그려졌다. 원대의 다른 문인화처럼 복고와 창신의 흐름 속에 나타난 말 그림들은, 당나라 한간(韓幹)과 북송 시대 이공린의 양식을 계승하여 새로운 화풍을 보여 주었다. 그 대표적 화가가 공개(龔開), 조맹부(趙孟頫), 임인발(任仁發)이다.

공개는 나라를 잃어버린 마음을 말에 의탁하여 표현하였다. 그의 <수마도(瘦馬圖)>는 한간의 <조야백(照夜白)>과 대비된다. <조야백>이 당나라 현종의 강건한 애마가 궁궐의 마구간에서 포효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면, <수마도>는 송 황실의 마구간에 있었지만 송나라가 망한 뒤 버림받은 준마의 매우 수척한 모습을 통해 나라를 잃은 공개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전한 것이다. 기법에서도 <조야백>은 정밀한 관찰을 통해 사실적으로 말의 역동적인 모습을 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마도>는 말의 윤곽선을 중간 중간 끊어서 거칠게 표현하고, 갈기와 꼬리는 가늘고 긴 필선으로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그렸으며, 먹의 번짐 현상을 활용하여 가죽에 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을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조맹부의 <인기도(人騎圖)>는 붉은 관복을 입은 무표정한 얼굴의 조맹부가 살찐 말을 타고 있는 것을 그린 것이다. 그는 송나라 종실 출신으로 처음에는 은거하였으나 이후 원나라의 관리가 되었다. 그 때문에 <인기도>는 후대에 조맹부의 훼손을 지적하는 구실이 되기도 하였지만, 살찐 말과 무표정한 얼굴의 대비는 조맹부의 모순적인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기도>의 중요한 점은 양식적 측면에 있다. 평소 말 좋아하여 세심히 관찰하였던 조맹부는 한간의 말 그림을 보면서 이공린의 백묘법으로 <인기도>를 그렸지만, 그 전체적인 인상은 뻣뻣하고 사실감이 떨어진다. 그려진 형상에 비해 여백이 지나치게 많아 구상도 자연스럽지 않다. 아울러 관복에만 원색에 가까운 붉은색을 칠해서 색채만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런데 이는 필법과 구상, 채색을 낮설고 서툰 함으로써 고의(古意)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명나라의 고응원은 “이것은 초보적인 기술과 다르다. 스스로 새로운 뜻을 나타내면, 서툰 것이 기교적인 완벽함이 되고, 기교적인 완벽함은 서툰 것이 된다.”라고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 양식적 고의(古意)에 따라 낮설고 서툰 게 그린 그림이 도리어 감상자의 마음에 옛것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한족의 문화적 정통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미적 성취로 인해 조맹부는 문인화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임인발은 원나라 관직에 있으면서 황실로부터 그림을 그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에게는 두 마리의 준마를 정밀하고 실제적으로 그린 <이준도(二駿圖)>가 있다. 그는 제발(題跋)로 제시한 글에서 살찐 말과 수척한 말을 대비하여 탐관오리를 풍자하고 청백리를 높이려고 적었다. 이는 자신을 변호하는 한 편의 회화적 이야기이다. 그의 말 그림은 송대 화원화의 화풍을 따라, 그림 그리는 데만 쓰는 붓으로 선을 긋고 채색 선염(渲染)을 하였기 때문에 낮설고 서툰 맛이 없다.

여기(餘技)로 그린 문인화는 뜻을 사물에 의탁하는 ‘우의어물(寓意於物)’을 의도한 것이다. 이에 반해 직업적인 화원화는 뜻을 사물에 머물게 하는 ‘유의어물(留意於物)’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화원화가 ‘의’와 ‘물’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곧 사물의 정확한 재현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문인들은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의’가 ‘물’의 영향을 받아 마음이 사물에 구속되어 세속적이게 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사물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물’에 ‘의’를 의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 우의어물은 그림에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내용적 측면에서 사물을 비유적인 의미로 나타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법적 측면에서 일필휘지처럼 마음을 일관되게도 연속적으로 표출하는 서예적인 필의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서예적으로 그린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붓 선의 강약, 속도, 굵기 등에 의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필의는 화가의 ‘의’, 곧 기운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 이로 볼 때, 우의어물은 내용뿐만 아니라 기법에도 적용되는, 말 그림 문인화의 제작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조맹부의 <인기도>

16. 위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 그림의 차이는 원나라의 지배에 대한 화가의 태도와 관련된다.
- ② 원대 문인들에게 그림은 자신의 뜻을 구현하는 이상적 방법이 었다.
- ③ 원대 문인화는 복고와 창신을 통해 문인화의 새로운 전형을 이루었다.
- ④ 제발은 형상과 함께 화가가 표현하려는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⑤ 문인화의 품평은 그림에 표현된 화가의 정신과 기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상은 작고 여백은 많게 하여 어색하게 구성하였다.
- ② 선을 뾰뾰하고 성기게 그려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 내었다.
- ③ 특정 부분을 진하게 채색해서 형상에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 ④ 대상을 정밀하게 관찰했으나 사실 재현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 ⑤ 낮설고 서툰 부분들이 어울려 부조화의 조화가 나타나게 했다.

18. ㉡을 기준으로, 위 글에서 언급된 작품들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마도>는 말에 화가의 신상을 의탁하였고, 붓의 강약, 속도, 굵기의 미묘한 변화에서 화가의 필의를 잘 느낄 수 있어서 우의어물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수마도>는 거칠게 그려진 면이 있어도 서예적 필치로 유연하고 일관되게 그려져 있으며, 마른 말을 나라 잃은 자신에 비유하였기에 우의어물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조야백>은 말의 역동적인 기상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었고, 말에 개인의 신상을 의탁한 것은 아니어서 우의어물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인기도>는 훼손로 인한 화가의 고뇌가 드러나 있고, 기법에서도 미적인 성취를 이루어 한족 문화를 지키려는 마음이 드러나기에 우의어물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이준도>는 말을 직업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려 내었지만, 탐관오리와 청백리에 비유하였기에 우의어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유럽의 후발국 공업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아이디어가 20세기 중엽에 거셴크론(A. Gerschenkron)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에 의하면 19세기 유럽의 각국은 경제적 후발성의 정도에서 다양한 색깔을 보여 주며, 후발국 공업화의 경로와 성격은 개시 시점에서의 후발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후발성의 정도가 클수록 첫째, 공업화는 광공업 생산의 ‘급격한 대약진’으로 나타난다.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러한 대약진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둘째, 기업과 공장 규모는 커지는 경향을 갖는다. 공장 노동에 적합한 노동자가 부족하여 근대적 기계 설비를 갖춘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소비재보다 생산재가 강조된다. 이는 영국의 성공적인 공업화가 철강 등 생산재의 대량 생산 체제에 있다고 후발국이 인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넷째, 총소득에 대한 저축 및 투자의 비율이 상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비를 억제하도록 하는 압력이 더욱 커진다. 다섯째, 발전 초기의 산업에 대해 자본을 공급하고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 이는 선진국에서 자생적 역할을 수행한 기업 부문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농업이 공산품의 국내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낮다. 즉, 후발국은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초기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공업화가 가능하다.

거셴크론은 후발성의 정도에 따라 19세기 유럽의 국가들을 선진형, 상대적 후발형, 그리고 극단적 후발형이라는 ㉠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이 갖는 후발성의 차이는 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의 변이와 연관된다고 하였다. 예컨대 영국에 비해 후발국인 나폴레옹 3세 시대의 프랑스에서는 피에르 형제가 설립한 투자 은행인 크레디 모빌리에가 공업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독일의 은행은 유니버설 뱅크의 전형적인 예로, 영국의 상업 은행이 행하였던 단기 업무와 공업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크레디 모빌리에의 기본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형태였다. 영국에서는 공업화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중공업의 발전에 최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독일에서는 은행으로부터 대량의 자금 공급이 이루어졌다. 이후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기업 이윤의 재투자를 통한 자본 공급이 일어났다. 한편, 독일보다 더 낮은 발전 상태에서 공업화를 개시한 러시아에서는 은행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여 처음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중공업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이후에 자본 공급에서 차지하는 국가 재정의 역할이 약화되고 독일에서와 같은 유니버설 뱅크가 등장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각국의 공업화 과정을 파악하는 관점은 경제 발전을 단계론적으로 인식하는 관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후자에서는 모든 국민 경제가 경제 발전의 도상에서 규칙적·필연적으로 동일한 단계들을 밟는다고 상정되고 있다. 예컨대 전후 냉전 시대의 이론가인 로스토(W. W. Rostow)는 모든 경제가 전근대 단계로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 급격한 공업화라는 도약 단계를 경험한 이후,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마침내 고도 대중 소비 단계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준비 단계에서 농업 생산성의 증가, 성장 지향적 가치 체계를 갖춘 근대 엘리트의 등장, 사회 간접 자본의 정비라는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도

약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이후의 도약 과정에서는 기업의 투자가 전 단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공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며, 농산물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업의 혁명적 변화도 진행된다고 보았다.

거셴크론은 로스토의 접근법이 단순명쾌하고 일반적인 논의로서는 의미를 가지지만, 그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 보았다. 로스토는 영국에서 공업화에 선행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에만 주목하여 그것을 모든 유럽 국가의 공업화에 있어야 할 보편적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거셴크론은 그러한 견해가 실증적 관찰과 어긋난다고 하였다. 즉, 영국에서 선행했던 요소들 중 일부가 후발국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선행조건이 부재함에도 공업 발전의 대약진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로스토의 단계론으로는 후발국의 공업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거셴크론은 '후발성'이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각국 공업화의 다양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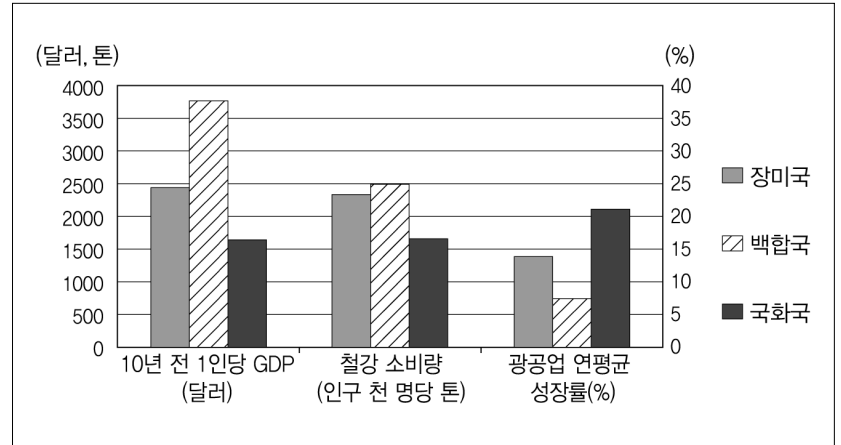
19. 거셴크론과 로스토의 관점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셴크론이 설명하는 공업화는 로스토의 성숙 단계에 해당한다.
- ② 거셴크론에 비해 로스토는 공업 부문 간 균형 성장을 중시하였다.
- ③ 거셴크론은 로스토의 단선적 경제 발전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④ 거셴크론과 로스토 모두 공업화를 급격한 변화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 ⑤ 거셴크론에 비해 로스토는 공업화에서 기업에 의한 자본 공급을 중시하였다.

20. 후발국 공업화에 대한 거셴크론의 설명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한 중공업 중심의 생산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 ② 산업 부문 간 자원 배분의 조정으로 인해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 ③ 소비 증대의 욕구가 강하므로 저축 및 투자 비율이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다.
- ④ 노동 집약형 설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농업 생산성의 지체로 인해 공산품의 국내 시장이 확대되지 않고 공업 부문에 대한 원료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다.

21. 다음은 ㉠의 전형적 사례를 도시한 것이다. 거셴크론의 설명에 따를 때, 공업화를 경험한 3개국의 자금 조달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장미국: 국가 재정에 의존하다가 상업 은행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 ② 장미국: 투자 은행에 의존하다가 기업의 자기 금융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 ③ 백합국: 국가 재정에 의존하다가 투자 은행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 ④ 백합국: 기업의 자기 금융에 의존하다가 투자 은행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 ⑤ 국화국: 상업 은행에 의존하다가 투자 은행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22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은 사회학의 오랜 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학은 사회 구조, 국가, 계급, 젠더, 문화 등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거시적인 사회 질서의 동학을 밝히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자연 과학을 모델로 하여 사회 질서에 대한 보편적인 인과 법칙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면서 사회학은 일상생활의 행위자로부터 유리된 거대한 추상적인 이론 체계로 변하였다. 또한 경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객관적인 사회 질서를 드러내는 변수들을 엄밀하게 측정하고 이 변수들의 관계인 명제를 검증하는 방법이 사회학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 질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행위자로부터 독립하여 사물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질서를 만들고 행하는 행위자의 모습은 사회학의 지평에서 희미해졌다.

그렇다고 사회학 내에 이를 탐구하는 진영이 없지는 않은데,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그중 대표적이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취해 상호 작용하는 구체적인 행위자를 탐구한다. 각 상황마다 특정한 규범이 요구되지만, 행위자는 이 규범의 압력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위하지는 않는다. 규범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준거하여 행위함으로써 규범 자체를 협상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이러한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질서가 출현한다. 어떤 규범이 요구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회 질서 역시 그 상황을 정의하는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출현한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규범 그 자체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 질서의 출현적 속성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면, 연극론적 분석은 그로부터 더 나아가 상황이 요구하는 기대, 즉 규범을 구현하기 위해 구사하는 온갖 전략에 관심을 갖는다. 행위자가 자신이 연출하는 인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타자에게 제공하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제한다는 생각은 사회학자 고프먼(E. Goffman)이 말한 연극론적 분석의 핵심이다. 관객이 관람하는 무대 전면에 있는 공연자는 일반적으로 상황이 요구하는 규범을 그때마다 구현하는 듯이 인상을 꾸려 나간다. 모든 상황에서 행위자들은 각자 자신이 정의한 주관적인 상황 정의를 공통의 상황 정의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상황 자체가 요구하는 규범을 인지하고 이를 더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 정의를 의식적으로 통제한다.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무대 전면의 사회 질서이다. 예컨대 얼핏 무질서해 보이는 공공장소에 있는 서로 모르는 행위자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익명성의 규범을 공동으로 실천함으로써 공공장소의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 일상생활의 무대 전면에 있는 행위자들은 도덕의 상인이다. 이는 사회의 이상화된 가치를 내면화하여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종교적 인간을 모델로 한 전통적인 사회학적 인간과는 다른 것이다. 도덕의 상인은 관리된 인상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려는 공연자이자, 상대방의 관리된 인상을 인정해 주는 관객이기도 하다. 상황에 따라 공연자의 역할이 주가 될 수도 있고 관객의 역할이 주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두 역할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때도 있다. 또한 상황들이 분명히 나누어지지 않고 여러 상황들이 중첩될 수도 있다. 핵심은 호혜적 인정의 주고받음

이다. 공연은 그 안과 밖을 차단하는 경계가 있으며, 이러한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은 외부자이다. 외부자가 자신을 위해 마련되지 않은 공연에 갑자기 침입하면, 공연자와 관객 모두 인상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무대 설정, 소품, 연기자의 의상 및 연기력 등이 정합적으로 갖추어져 관객의 일체감을 끌어내어야 한다.

연극론적 분석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은 지나치게 냉소적인 공연을 하는 연극적 행위자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면화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전통적 인간형을 행위자의 모델로 삼은 기능주의에서 이러한 비판을 강하게 던졌다. 이에 대해 고프먼은 일상생활이 무대 전면만이 아니라 무대 후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무대 후면은 관객이 관찰할 수 없다고 상정된 곳으로, 인상 관리된 자아 이외의 다른 자아가 거주한다. 예컨대 은밀하고 사적인 말과 행동이 여기에서 가능하다. 일상생활의 행위자는 대개 무대 전면에서 무대 후면으로, 또 그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동한다. 사회적 공연에서는 무대 전면과 무대 후면의 구분이 물리적 공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객에게 무대를 옮긴다는 확실한 표지를 주어야 한다.

22.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기능주의가 그리는 행위자는 사회의 이상적 가치를 형식적으로 수용하여 규범의 압력을 받아 행동한다.
- ② 자연 과학을 모델로 한 사회학은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질서가 재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③ 기존의 사회학은 변수의 엄밀한 측정과 명제의 검증을 통해 일상생활의 행위자의 상호 작용을 탐구하였다.
- ④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 질서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연극론적 분석은 인상 관리 전략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 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입장에서 볼 때, 거시적인 사회 질서는 일상생활의 행위자의 행위로부터 유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23.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상을 관리해 통해 무대 전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 ② 각 상황에 따라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역할을 모른다.
- ③ 내면화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통의 상황 정의를 유지한다.
- ④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무대 설정, 소품, 의상, 연기력 등을 임의로 조합한다.
- ⑤ 자신의 상황 정의를 상대방의 그것보다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4. 고프먼의 연극론적 분석을 다음 상황에 적용할 때, 화자의 관점에서 ㉠~㉣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서울로 가는 KTX에서 모르는 여성과 동석하였다. ㉠ 처음에는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자리하였고 한마디의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대전에 이를 즈음 갑자기 여성에게 전화가 왔다. ㉡ 여성은 주위를 의식한 듯 소리를 낮추어 통화했다. 그 여성은 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는지, 남자 친구와 언제 첫 키스를 했는지 등 내밀한 이야기를 하였다. ㉢ 나는 당혹감을 감춘 채, 안 듣는 척하였다. 열정적인 연애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헤어졌다는 말 이후 화제가 바뀌었다. 나는 왜 헤어졌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못하고, 혹 다시 이야기가 시작될까 기다렸다. 순간 뒤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소리가 침입했다. “근데, 왜 헤어졌어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 한 사내아이가 뜻 모를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제서야 어리둥절 뒤를 돌아보는 여성과 두 눈이 마주쳤다. ㉤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절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 ① ㉠ : 공공장소인 KTX는 익명성의 규범이 요구되는 무대 전면이고, ‘나’와 여성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 ② ㉡ : 여성은 기존의 상황과 결별하지 않고 전화 속의 인물과 함께 새로운 상황에 들어감으로써, ‘나’를 외부자로 간주하였다.
- ③ ㉢ : ‘나’는 무대 후면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상을 관리하였다.
- ④ ㉣ : 사내아이는 원래 ‘나’와 여성 사이에 일어나는 공연의 외부자로 간주되었지만, 공연 안으로 예고 없이 침입하였다.
- ⑤ ㉤ : ‘나’는 공통의 상황 정의에 따른 인상 관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될까 봐 당혹스러웠다.

[25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심신 동일론’은 심리 상태가 두뇌 또는 중추 신경계의 어떤 물리적 상태와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번개가 대기의 전기 방전이고, 온도가 입자의 운동 에너지인 것처럼, 우리가 여태껏 심리 상태라고 불러 온 것들은 실상은 두뇌 상태들이라는 것이다. 심리 상태의 여러 유형들과 두뇌 상태의 유형들 간의 상관관계는 신경생리학이 발달함에 따라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관관계는 두 유형 사이의 동일성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

동일론자들이 말하는 심신 간의 동일성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그 동일성은 동일한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 수적(數的) 동일성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나는 네가 어제 산 시계와 똑같은 시계를 방금 샀어.”라고 말할 때의 동일성이 아니라, “그 시계는 내가 어제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야.”라고 말할 때의 동일성이다. 둘째, 이 동일성은 개념적이고 선형적인 동일성이 아니라 ㉡ 경험적인 동일성이다. ‘총각은 결혼 안 한 남자’는 개념적이고 선형적인 동일성이지만, ‘물은 H₂O’라는 동일성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발견된 것이다. 예컨대, ‘통증은 두뇌 상태 S’라는 동일성은 ‘통증’이나 ‘두뇌 상태 S’의 개념적 분석이 아니라 신경생리학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경험적 진리이다.

수적 동일성은 “두 대상이 모든 속성을 공유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그 두 대상은 동일하다.”라는 ㉢ 라이프니츠 법칙에 지배된다. 통증이 두뇌 상태 S와 동일한 상태라면 이 두 상태는 모든 속성을 공유해야 한다. 어떤 철학자들은 공간적 속성을 들어 동일론을 반박하려 하였다. 모든 두뇌 상태는 물리적 상태이므로 특정한 공간적 위치를 갖지만, 많은 심리 상태들은 위치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증과 두뇌 상태 S를 동일시키는 것은 5가 초록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 범주 착오라는 것이다. 수는 색깔을 부여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이 주파수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도 예전에는 터무니없는 말로 들렸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 동일론이 경험적 증거를 축적해 가고 신경 과학의 용어들이 일상화되어 가면서 심리 상태에 두뇌 상태를 연결하는 진술들의 의미론적 기이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내가 두뇌 상태 S에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므로 통증은 두뇌 상태 S와 동일할 수 없다.”라는 반론도 라이프니츠 법칙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증은 이른바 ㉤ 내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내가 두뇌 상태 S에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라는 전제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두 개의 개념이 같지 않다는 것뿐이다. 이러한 경우가 동일론을 반박한다면 온도의 개념을 알지만 운동 에너지가 무엇인지는 모를 수 있다는 것이 온도가 입자의 운동 에너지라는 물리학의 동일성을 반박하는 셈이 될 것이다.

데카르트 이래 제기되었던 동일론에 대한 많은 반론들은 답변이 가능하거나, 적어도 결정적인 반박이 되지 않는 못하였다. 그러나 퍼트남이 제기한 다수 실현 논변은 동일론에 대하여 결정적인 반박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동일론이 옳다면 “통증은 두뇌 상태 S이다.”라는 진술은 법칙적 일반성을 갖는 진술일 것이다. 그렇다면 두뇌 상태 S를 갖지 않는 생물체는 통증을 가질 수 없어

야 한다. 그러나 중추 신경계가 인간과는 매우 다른 연체동물도 통증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감각과 지능은 인간과 비슷한데 신경 계통은 실리콘 기반인 외계인도 법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통증'이라고 부르는 심리 상태는 신체를 손상하는 자극에 의해 발생하며, 공포나 분노 같은 다른 내적 상태를 낳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나 감정들과 결합하여 특정한 행동 반응을 산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간과 물리적 조성이 전혀 다른 외계인이나 로봇도 인간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심리 상태를 가질 수 있다. 환경의 여러 입력들에 대하여 그들이 인간과 동일하게 감응하고, 인간과 동일하게 분류될 수 있는 내적 상태들을 가지며, 입력 자극에 대하여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환경적 입력들-내적 상태들-출력 반응들'의 연결도 인간과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외계인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들도 인간과 같은 심리 상태를 갖는다고 믿게 될 것이다. 심리 상태를, 그것을 실현하는 물리적 기반이 아니라 그 상태가 체계의 '환경적 입력들-내적 상태들-출력 반응들'에서 하는 역할로 정의하는 관점을 '심리적 기능주의'라고 부른다.

심리 상태의 물리적 기반을 강조하는 동일론자들은 심리적 개념에 상응하는 신경적 기반이 종(種)에 따라 다르다고 말함으로써 이런 주장에 대응한다. 온도가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 운동의 에너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기체에서만 성립하고 고체나 플라즈마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래도 기체에서의 온도가 그 기체에서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와 동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서의 고통'은 두뇌 상태 S이고, '외계인에서의 고통'은 전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다. 이것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는 범위가 축소된 동일성이기는 하지만 심리 상태가 결국 물리적 상태와 동일하다는 애초의 주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25. 위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론자는 심리 상태에 공간적 위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생각은 변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 ② 동일론자는 다수 실현 논변에 대해 인간의 복잡한 통증과 연체동물의 단순한 통증이 동일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동일론자는 신경 생리학이 완성되어 각각의 심리 상태와 동일한 두뇌 상태를 모두 알게 되면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은 불필요하다고 믿을 것이다.
- ④ 심리적 기능주의자는 인간과 동일한 심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로봇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람과 같은 인공 신경 체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⑤ 심리적 기능주의자는 가상현실에서 형성된 심리 상태는 실제 현실과 동일한 입력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실제 현실 속에서 형성된 심리 상태와 다르다고 말할 것이다.

26. ㉠~㉣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내가 알던 퇴계는 알고 보니 이황이었다."라는 말에서 '퇴계'와 '이황'의 동일성은 수적 동일성이다.
- ② ㉡: '새별'과 '개밥바라기'가 같은 행성 '금성'이라는 것은 천체 관찰에 의해 발견된 것이므로 경험적 동일성이다.
- ③ ㉢: 내가 용의자와 닮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범죄 혐의를 벗어난 것은 라이프니츠 법칙이 적용된 것이다.
- ④ ㉣: '움직인다'는 말을 '지구를 기준으로 한 위치 변화'로 정의하면, '지구'는 움직이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구는 움직인다."라는 진술은 범주 착오에 해당한다.
- ⑤ ㉤: 귀신이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 못하므로, 귀신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포적 오류이다.

27. 다음의 가상 상황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심신 동일론을 지지하는 심리학자 A와 심리적 기능주의를 지지하는 심리학자 B가 속한 어떤 탐험대가 우주 탐사 중 인간과 동일한 환경에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 외계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탐험대는 그 외계인들이 인간과 같은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행동과 말이 놀랍게도 인간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외계인들은 자신의 신체에 손상이 가해지면 인간과 동일한 회피 동작을 보였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인간처럼 '통증'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A와 B는 그들이 경험하는 주관적 느낌이 정말로 인간과 동일한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이 '통증'이라고 분류하는 상태가 환경적 입력들, 내적 상태들, 출력 반응들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통증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주관적 느낌은 혹시 통증이 아니라 간지러움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① A는 인간과 달리 그들의 통증을 실현하는 물리적 상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통증과 인간의 통증이 동일한지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 ② A는 그들과 인간이 대응하는 심리 상태를 지지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가 엄격하게 동일하므로, 그들의 통증과 인간의 통증은 동일한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 ③ A는 그들과 인간이 동일한 단어로 지지하는 심리 상태가 동일한 주관적 느낌인지 모르므로, 그들의 통증과 인간의 통증은 동일한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 ④ B는 그들과 인간이 각각의 통증 상태를 동일한 단어로 지지하므로, 인간의 통증과 그들의 통증이 동일한 심리 상태라고 판단할 것이다.
- ⑤ B는 그들과 인간이 동일한 단어로 지지하는 심리 상태가 말고 있는 기능적 역할이 동일하므로, 인간과 그들의 주관적 느낌도 동일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필이면 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서 있다가 우연찮게도 죽음을 뒤집어쓰고 있는 여자를 보게 되었던 말이다. 그래도 타인임을 빌미로 애써 외면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 한데 그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에 대한 저 한 가닥 미련의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면? 뭐 문상을 가던 길이 아니었냐고? 그래, ㉠ 죽음 앞에 납작 엎드리러 가다 나는 산[生] 죽음과 서로 어깨가 부딪친 거야.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내 목숨을 구한 일이 있어.

여자는 중간계의 창문 옆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앉아 있는 곳을 기우뚱하니 지나쳐 맨 뒷자리에 가 앉았다. 겨우 1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버스는 곧 출발했다. 버스가 광주를 빠져나갈 때까지 나는 졸곧 눈을 감고 있었다. 어째서 느닷없이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나중에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둘러댄단 말인가. ㉡ 어쩌면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인지도 모른다. 슬픔이 슬픔을 알아보고 사랑이 사랑을 알아보듯 죽음 또한 죽음과 만나면 별수 없이 서로를 알아보게 마련인가 보다. 하여 길을 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행로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물론 나 자신마저도.

버스가 나주를 지날 때 나는 혼곤한 피로에 싸여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죽음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 아홉 살 댄가 열 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비가 온 다음날 친구들과 함께 조개를 잡으러 가서였다. 친구들과 나는 띄약 별이 내리쬐는 철길을 따라 반나절이나 걸어 큰 강에 도착했다. 민물과 바닷물이 겹치는 그곳엔 손바닥만 한 대합이 참 많았다. 나는 손끝이 수면에 걸릴 정도의 깊이까지만 잠수해 들어가 바다에 있는 조개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옆구리끼로 떠내려가는 물살의 힘은 엄청나게 셌다. 한순간 몸이 거꾸로 떠서 비틀리며 나는 이내 거센 물살에 휘감기고 말았다. 아무리 허우적대도 중심을 되찾을 방법은 없었다. 그리고 뼈마디의 힘이 다 빠져나갔을 때 나는 물속에서 번쩍 눈을 뜨고 마지막 생사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삶과 죽음이 별거벗은 남너처럼 엇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마침내 날숨이 코까지 올라왔고 이어 실크 커튼처럼 부드러운 빛이 내 손과 발을 조여 묶기 시작했다. 짙은 푸른빛이었던 실크 커튼은 점점 보랏빛으로 변해 갔다. 그리고 보랏빛이 흰빛으로 바뀔 즈음 나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중략)

소리꾼들의 영창(詠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안 떠나셨군요.”

“장지에 갔던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나는 사내가 건네주는 소주잔을 받으며 문득 생각이 나서 동백이 있는 곳을 물어보았다.

“새벽에 못 보셨군요. 숲에 가면 여기저기 지천인데요.”

그랬구나. 하지만 그때 내 눈에 동백이 보였을 리 없다.

“하루 더 목을 작정하면 눈이 녹기 전에 들어가 봐요. 눈 속에 피어 있는 것이 진짜지요.”

“벌써 피었을까요?”

“핀 놔도 있고 안 핀 놔도 있을 겁니다. 저 소리꾼들처럼 말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다들 소리를 얻고 돌아갈 작정으로 내려오지만 누구나 동백이 피는 걸 보고 올라가는 건 아니란 얘기죠.”

사내는 소주를 가볍게 입에 털어 넣고는 밖에서 들려오는 계면조의 단가 하나를 잡고 제멋대로 운을 잡아 흥얼거렸다. 어쩐지 귀에 익은 듯하여 가만히 듣다 보니 새벽녘에 숲을 헤맬 때 들던 가락이었다.

“몽유가(夢遊歌)의 한 대목이죠 아마.”

몽유가. 나는 묵묵히 그 소리에 귀를 던져두고 있었다.

“지금 소리하는 저 여자는 ㉣ 동백이 핀 걸 보았을까요?”

“저야 모르죠. 서당개처럼 여기 앉아 몇 해 듣다 보니 겨우 귀가 좀 열렸을 뿐인 걸요.”

사내는 세 병째의 소주병을 이빨로 물어 따며 돌밭에 앉아 있는 여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 여자는 지치지도 않는지 아침부터 내내 바다만 마주보고 있었다. 바람이 부는 모양으로 머리칼이 풀풀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밤을 잘 두고 봐야겠어요. 저렇게 앉아 있다 실성한 사람처럼 곤장 바다로 걸어 들어갈지도 모르니까요. 아홉 고랑 끝까지 말예요.”

“…….”

이제는 여자가 앉아 있는 데까지 밀물이 차 들어오고 있었다.

“3년 전인가 내 집에 들었던 노파 하나가 숲에서 목을 매 죽은 일이 있었죠. 뭐 어쩔 수도 없었지만 그걸 막지 못한 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습니다. 그땐 저 여자 분처럼 뒤를 따라온 사람도 없었죠.”

뒤를 따라온 사람.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노파는 혼자 택시를 대절해 여기까지 와서는 나흘째 묵고 있었다.

“아침에 뉘시에서 돌아오다 숲에 걸려 있는 노파의 흰옷을 보았죠. 정월 보름날이었는데 새벽에 지팡이를 짚고 나가 일을 저지른 거지요. 나중에 들으니 동백 숲으로 봉황을 보러 왔다가 그렇게 됐다고 합디다.”

“봉황이요? 그건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새 아닙니까?”

“그 노파는 장님이었어요.”

“!…….”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내일이 보름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어제오늘 나를 여기에 붙잡아 둔 것이 이 횃집 사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중략)

여자는 광주에서 검은 양복을 입고 있던 나를 본 순간에야 자신이 죽으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한 것도 그때였다고. 내가 구계등까지 따라오게 내버려 둔 것도 실은 아이를 엄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누군가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래서 자신이 부러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온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구계등까지 걸어온 건 읍내 터미널에 내려서도 확실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탓이었다. 다른 한편으론 내게 돌아갈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쳐 따라오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작정이었다.

여자는 자신의 전생을 지우기 위해 나와야 관계를 원했고 그리

하여 아이는 살리되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놓여날 수 있었다고 중얼거리며 내 팔 안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

여자가 개 놓고 간 옷을 챙겨 입고 아래로 내려와 나는 주인 사내가 미리 챙겨 놓은 밥상을 받았다. ㉠ 어느덧 비가 그치고 햇살이 바다 위에 내려와 너울거리고 있었다. 늦게까지 주무셨군요, 하며 주인 사내가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그새 열 시였다.

“여자 분은 먼저 내려와 아침을 먹고 떠났습니다. 소리꾼들도 오늘 다 떠난다고 하더군요.”

새벽녘에 있었던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내는 무심한 얼굴로 낚싯대를 닦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묵묵부답으로 수저질만 하고 있었다.

- 윤대녕, 천지간 -

28.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생사의 문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우연적인 사건을 인연으로 바꾸어 생명의 소중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④ 간결한 문체와 사실적 묘사로 인물들 간의 소외된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 ⑤ 주인공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독자들이 그의 생각과 행위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9.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이후 일어날 사건의 발단으로 구성함.
- ② ㉡: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속성을 암시하며 극적 긴장감을 조성함.
- ③ ㉢: 주인공이 세상사에 무관심하고 소심한 성격을 갖게 된 이유를 제시함.
- ④ ㉣: 인물의 행위 묘사를 통해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함.
- ⑤ ㉣: 배경 묘사를 통해 중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암시함.

30. ㉠ 동백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을 바라보는 주체인 ‘소리하는 여자’에게는 인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뜻한다.
- ② 답변하는 ‘사내’의 입장에서는 판소리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문화의 가치를 의미한다.
- ③ 소리꾼이 추구하는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삶의 의미나 득음으로 일컬어지는 경지를 가리킨다.
- ④ 꽃에 ‘소리하는 여자’를 투영해 보는 행위와 관련되어 내면세계의 고결함이나 정숙함을 상징한다.
- ⑤ ‘눈 속에 핀 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속악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표상한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